

다시 읽는 푸틴: *Mr. Putin*(2013)과 『뉴 차르』(2016)

이 상 준*

푸틴이 대통령으로서 러시아를 통치하기 시작한 지 14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로서의 임기까지를 고려한다면 이미 그의 통치기간은 18년을 넘어섰고 햇수로는 19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국제무대에 얼굴이 알려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러시아 현대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푸틴의 행적은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언론이 그를 ‘철권 통치자’, ‘스트롱맨’ 등의 이미지를 통해 단편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에 대한 자서전과 평전은 푸틴의 통치 철학과 스타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다루고 있다. 푸틴 개인에 관한 책은 이미 한국어로 여러 권 번역되어 있다. 그가 처음으로 러시아 권력의 중심에 등장했던 시기에 출간된 『푸틴 자서전』(N. 게보르칸·N. 티마코바·A. 콜레스 니코프 편저, 표윤경 옮김, 문학사상사, 2001)에는 새로운 통치자 푸틴의 인간적 면모가 러시아 작가의 손에 의해 문답식으로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또 북경대 연구교수 멩즈커의 저작을 번역한 『남자의 남자, 푸틴: 남자라면 푸틴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라』(멩즈커 지음, 이지은 옮김, 베이직북스, 2007)도 출간된 바 있다. 푸틴의 집권 2기 후반에 저술된 이 책은 그의 집권 1, 2기의 업적과 성과를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다. 각각 러시아어와 중국어로 출판된 이 두 저서는 푸틴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두 시기 — 집권 초기와 집권 2기

*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

(Lee, Sang Joon,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urasian Studies at Kookmin University).

퇴임 시기 — 에 집필된 이유인지 그의 업적에 대해 비교적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모스크바 특파원을 지낸 이기동 서울신문 전 기자에 의해 최근 번역된 스티븐 리 마이어스(Steven Lee Myers) 전 뉴욕타임즈 기자의 책 『뉴 차르: 블라디미르 푸틴 평전』(프리뷰, 2016)은 제목이 말해주듯이 러시아 최고의 권력자 푸틴 대통령이 점차 차르 시대의 절대 권력자가 되어 가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마이어스 기자는 푸틴이 소련의 통치스타일을 가미한 ‘새로운’ 차르가 되어가는 모습에 주목한다.

이러한 기초의 글 중에 — 아직 한국어로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 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를 통해 출간된 *Mr. Putin: Operative in the Kremlin*(Fiona Hill and Clifford G. Gaddy, 2013)이 있다. *Mr. Putin*은 푸틴의 자서전이라기보다는 푸틴의 업적을 평가하는 학술서로, 푸틴을 주제로 하는 가장 주목받는 저술이다. 그 이유는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국(NSA) 보좌관이 저자 중 한 명인 영국출신 러시아 연구자 피오나 힐을 유럽 및 러시아 지역 수석 담당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과거 필자는 미국슬라브학회(AAASS)에서 두어 차례 피오나 힐 박사의 발표를 들은 적이 있다. 필자가 피오나 힐 박사의 발표 패널에 참석했던 이유는 피오나 힐 박사와 함께 팀을 이루어 발표하였던 영국왕립학술원 필립 헨슨 교수나 웨슬리안 대학교 피터 루트란트 교수의 발표를 듣기 위함이었다. 러시아학계 대학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발표는 매우 겸손하게 느껴졌지만 강한 영국 악센트 때문인지 러시아의 사유화 과정을 비롯한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이 당차게 느껴졌었다.

러시아의 1990년대 사유화 과정이 지닌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주제였기 때문에 경제학자인 필자로서는 그녀의 발표가 그다지 인상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신진학자로서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보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랬던 그녀가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클리포트 개디와 『시베리아의 저주(The Siberian Curse)』(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3)라는 연구서를 출간하더니 *Mr. Putin*이라는 흥미로운 책을 저술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부시 및 오바마 행정부의 대러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직위에 있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국에서도 대러 정책 수립과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힐 박사는 자신의 저작 *Mr. Putin*을 통해 푸틴을 러시아 국익과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크렘린 요원으로 묘사하고 있다. 힐 박사는 과거 KGB 출신이었던 푸틴을 정보 왜곡 및 가짜뉴스 생산에 능수능란한 인물로 그리면서 KGB에서 익힌 기술과 올리가르히의 마케팅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를 거침없이 비판하고 있다.

마이어스 기자 역시 『뉴 차르』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 지독한 편견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는 푸틴이 심지어 체첸 반군보다 체첸전쟁을 보도하는 언론인들이 러시아에 더 해악적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영미권 학계가 푸틴 대통령을 제정 러시아의 차르와 소련의 서기장을 합쳐 놓은 것처럼 묘사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게 일해지면서도 과연 이러한 평가가 편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필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푸틴에 대한 영미권 학계의 날선 비판들 중에 첫 번째 비판은 체첸전쟁과 이를 둘러싼 언론의 보도에 대한 푸틴의 대응에 향한다. 소련의 해체를 겪은 러시아에서는 1998년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연방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러시아 정치 엘리트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래서 선거 캠페인 시기 푸틴은 체첸 문제의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체첸이 분리 독립하면 러시아 연방은 견잡을 수 없는 혼란에 처해지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푸틴은 이러한 위험한 사태를 예방하고자 서구 열강이 중동에서 전쟁을 하였던 것처럼 체첸 전쟁을 시작하였다. 어차피 전쟁 자체가 부조리한 것이니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어도 그 과정은 범죄와 해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라크와 중동에서 전개하는 전쟁 역시 부도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영미권 언론보도는 편견을 가지지 않았던가? 그랬다면 알자지라 방송이 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푸틴 정부가 모두 잘 했다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영미권 학계가 푸틴을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올리가르히와의 관계에서 푸틴이 기업인들을 억압한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1990년 러시아 정치에서 체제전환의 혼란을 틈타 국정농단을 저지른 올리가르히를 공격하여 국민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한 정치행위가 비난받을 일이었던가! 만일 올리가르히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국가

의 이러한 통치행위에 시민들이 저항했을 것이다. 체제전환 초기, 개혁을 추진하였던 이고르 가이다르 부총리가 자유화 개혁과 안정화를 위해 자본이 필요했고 이 때문에 서구의 자비로운 협력자에게 60억불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1992년 10월 러시아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막지 못하는 시기에 겨우 10억불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였던 러시아 개혁가에게 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생색만 낸 것이 서방의 협력자들이었다. 당시 러시아 국가 부문의 엘리트들이 이러한 모멸감을 잊었다고 생각하는가? 러시아인들은 1990년대 그들의 삶을 고단하게 했던 국정농단 세력 올리가르히에 대한 처벌로서 푸틴의 통치행위를 해석하고 지지하였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올리가르히와 동업을 모색했던 소로스가 동유럽과 CIS 지역의 민주화를 지원했던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곧 자신들의 영향력의 확대라는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서구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던가?

셋째는 푸틴의 권력 연장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푸틴이 메드베데프를 내세워 연임제한을 풀고 집권 3기를 시작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의 민주주의와 다른 전통을 가진 국가들이 민주주의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접근이 바뀔 필요가 있다. 혼란과 질서 사이에 사회적 선택이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서구의 공격적인 태도는 자연스럽게 푸틴의 집권 연장에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으로 크림 합병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과 역할에 대한 비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NATO의 동진은 러시아의 반발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우크라이나의 갈지자 외교 행보는 우크라이나 국민뿐만 아니라 서방과 러시아 모두에게 혼란스러운 것이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 이후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점령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크림이 러시아에 속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만 비난할 일은 아닐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러시아의 크림합병과 우크라이나 사태개입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러시아의 이러한 전략적 대응은 서방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미국과 유럽은 예견하지 못한 것일까? 혹은 러시아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도록 도발한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답은 쉽게 찾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읽은 『뉴 차르』와 *Mr. Putin*은 푸틴에 관

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정보 또한 많이 제공한다. 『뉴 차르』에서는 푸틴이 어린 시절 삼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덩치 큰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되었다는 점(19쪽)과 쉬콜라를 다닐 때 스파이 영화 “방패와 칼”을 보고 스파이가 되겠다고 KGB를 무작정 찾아갔다는 일화도 기록하고 있다(20-21쪽). *Mr. Putin*은 대통령 행정실과 FSB 국장 시절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할 때마다 콤프로마트(소련 시절부터 러시아 정보기관이 반체제 인사나 외국 요인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는 것)를 활용하여 그의 반대 세력을 제어하고 힘을 발휘하는 것(p. 5)에 대해 언급한다. 또한 푸틴은 시장경제를 믿고 있지만 동독과 상트페테르부르크 근무를 통해 기업가들을 파트너가 아닌 타겟으로 설정하고 일을 추진하였기에 이 시기에도 요원처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pp. 165-166).

푸틴의 업무 스타일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일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작용과 범위 등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 핵심 팀을 구성하고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지만 그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핵심 팀이 알도록 해서 세부적인 내용도 잘 준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치 시스템의 일부 지분을 주는 방식으로 적절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Ch. 9, “System”)은 알료나 레데네바(Alena V. Ledeneva)의 *Can Russia Moderniz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의 분석과 유사하다.

『뉴 차르』에는 비교적 흥미로운 분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푸틴이 새로운 것을 즐겨 토론하고 역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둘째 딸 카차와 한국 윤제독의 아들 간 확인이 안 된 로맨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오바마와 메드베데프의 실수(?)에 의한 협상 내용 공개 등 다양한 사실과 내용을 책의 저자는 기술하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독자는 숨은그림찾기처럼 푸틴에 관한 새롭고 흥미로운 점을 계속 발견할 수 있다.

끝으로 *Mr. Putin*은 러시아 사회경제의 변화 속에서 푸틴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여 그 자신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생, 성장하여 KGB에 들어간 이후 동독에서 근무하면서 그는 소련이 해체되는 것을 목도하였고, 그 역시 방황하고 길을 잃었다. 그러다 다행히도 상트페테르부르크 개혁의 중심에서 시장경제가 자신이 처한 목적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믿게 된 과정을 책은 소개한다. 또한 소브차크가 선거에 진 것을 계기로 푸틴이 모스크바로 진출하여 자

신의 경력을 하나씩 쌓으면서 과거에 머물지 않고 과거의 장점 혹은 필요악을 수용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변신을 꾀하였고, 이러한 끊임없는 변신의 결과 오늘날 국제무대의 거물 정치인이 되었음을 지적한다.

내년(2018년)은 푸틴대통령이 출마하여 당선되면 집권 4기가 시작되는 해로, 어쩌면 푸틴은 적어도 합법적으로 권력을 가지게 되는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있는지 모른다. 과연 푸틴이 과거와 다른 또 하나의 발전된 자아를 가지고 러시아를 발전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면 비록 충분치는 않지만 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푸틴에 관한 일련의 책들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우리나라 역시 한러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권력의 중심에 있는 푸틴을 러시아식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러시아의 측면에서 푸틴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만큼 한러관계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